

강낭콩 재배농가의 경영분석 및 시사점*

석다솜, 박동진, 고현석
농촌진흥청 농산업경영과

e-mail: dsseok@korea.kr, djpark0212@korea.kr, hsko@korea.kr

Income Analysis of the Kidney Bean Farming and its Implication

Da-Som Seok, Dong-Jin, Park, Hyeon-Seok, Ko

*Dept. of Farm & Agribusiness Management Division, RDA

요약

과잉되고 있는 쌀 공급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전략작물직불제'는 쌀 대체작목으로 가루쌀, 밀, 콩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콩의 경우에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중 콩에 해당하는 작목으로 황태, 청태, 흑태, 서리태, 풋콩, 약콩, 호랑이콩, 강낭콩 등 다양한 품종을 포함하고 있다. 콩의 경우 다양한 품종이 있는 만큼 소득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콩외의 다른 품종에 대한 소득조사가 되어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진흥청의 연구과제 「소생산액 품목의 경영실태 및 성과분석」을 통해, 호랑이콩 재배지역 중 충청남도 보령시, 충청북도 제천시, 강원도 홍천군을 조사지역으로 선정하고 경영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신규 농가에 경영의사결정, 작목 선정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호랑이콩 경영분석을 위해 선정된 조사지역의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농가 경영기록장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경영실태를 분석하였다.

호랑이콩 재배농가의 지역별 경영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호랑이콩은 출하 시기에 따라 kg당 단가의 차이가 있고, 이로 인해 보령지역 시설재배농가의 총수입이 10a당 약 429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천지역 노지재배농가의 총수입은 10a당 약 226만 원, 홍천지역 노지재배농가는 10a당 약 225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 10a당 호랑이콩 경영비는 제천지역이 약 69만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보령의 노지재배는 약 94만 원, 보령의 시설재배는 약 128만 원, 홍천지역은 약 148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호랑이콩 생산비에서 자가노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역별로 각각 홍천이 44.7%, 제천이 63.7%, 보령(노지)가 55.2%, 보령(시설)이 4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호랑이콩의 10a당 소득의 지역별 분석 결과,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보령의 시설재배농가로 약 300만 원으로 나타났고, 보령 노지재배농가의 10a당 소득은 약 24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제천과 홍천의 경우에는 10a당 소득이 각각 157만 원, 76만 원으로 나타났다.

호랑이콩 재배농가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랑이콩은 수확작업을 위해 노동투입이 많이 필요하나, 원활하게 노동력이 공급되지 않아 자가 노동 비중이 상당하였다. 조사지역의 재배농가들은 터널재배를 통해 유인줄과 그물, 지춥대를 설치하고 있어 기계수확이 어려운 실정이다. 자가 노동 외에 고용노동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노동 공급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등의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발작물 수확을 위한 농기계 개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현재 재배농가의 대부분이 자가채종을 통해 종자를 확보하고 있다. 지속적인 자가채종으로 인하여, 품종의 돌연변이나 병해충 저항성이 떨어져 수확량이 감소한다고 한다. 따라서, 병해충 저항성이 높은 품종의 개발도 필요하다.

* 본 논문은 농촌진흥청 연구사업(과제번호: PJ015764)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